



미 증시, 부채한도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방 압력 재차 심화

미국 증시 리뷰 및 주요 이슈

국내 연휴기간(1 일~4 일) 2 거래일간 미국 증시는 9 월 ISM 제조업지수 등 주요지표 호조,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도, 부채한도 협상 난항, 헉다그룹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재개 경계감 등으로 1 일(금) 상승폭을 반납하며 다우는 소폭 상승, S&P500과 나스닥은 하락 전환 마감(다우 +0.5%, S&P500 -0.2%, 나스닥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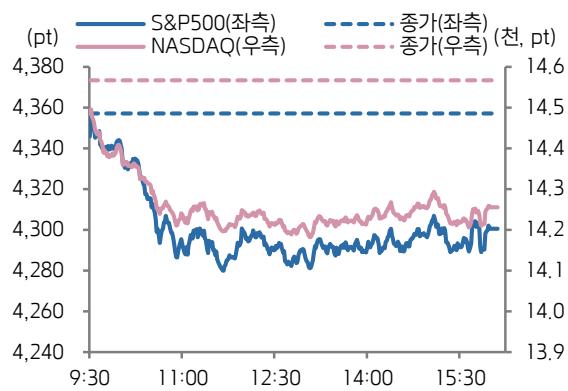
1 일(금)에는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지속에도, 9 월 ISM 제조업 지수 및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호조 속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회복. 이 영향으로 모더나(-11.4%) 등 백신관련주들은 급락했으나, 리오프닝 및 경기 민감 업종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1.4%, S&P500 +1.2%, 나스닥 +0.8%).

4 일(월)에는 산유국들의 증산규모 유지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부담(2014년 11 월 이후 최고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난항 우려 확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재개 경계심리 등이 기술 및 성장주들 중심으로 하방압력을 가하면서 약 1%대 급락 마감(다우 -0.9%, S&P500 -1.3%, 나스닥 -2.1%).

9 월 ISM 제조업 지수는 61.6로 전월(59.9) 및 예상치(59.5)를 모두 상회. 세부 항목상으로 신규주문(66.7→66.7), 생산(60.6→59.6)이 정체 및 부진했으나, 재고(54.2→55.6), 고용(49.0→50.2)이 개선. 가격(79.4→81.2)도 상승하면서 물류 및 공급난 여파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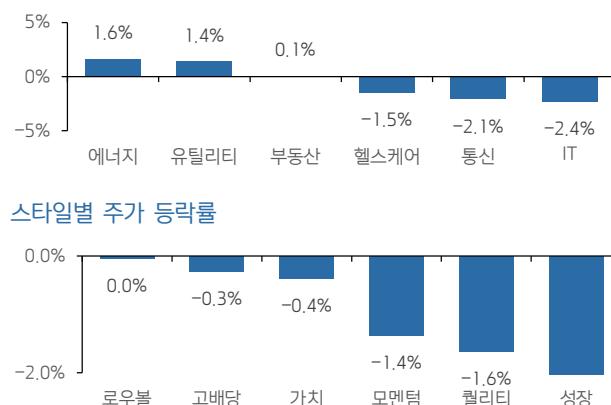
4 일 헉다 및 헉다의 부동산 사업부 헉다물업은 홍콩 증시에서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고 발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헉다그룹이 자회사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00.46	-1.3%	USD/KRW	1,182.23	-0.49%
NASDAQ	14,255.48	-2.14%	달러 지수	93.82	-0.23%
다우	34,002.92	-0.94%	EUR/USD	1.16	-0.01%
VIX	22.96	+8.56%	USD/CNH	6.45	-0.01%
러셀 2000	2,217.47	-1.08%	USD/JPY	110.91	-0.02%
필라. 반도체	3,180.06	-2.4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210.00	-0.29%	국고채 3년	1.630	+4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250	+1.3bp
Eurostoxx50	3,996.41	-0.96%	미국 국채 2년	0.278	+1.4bp
MSCI 전세계 지수	705.53	-0.97%	미국 국채 10년	1.479	+1.7bp
MSCI DM 지수	2,992.89	-0.9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36.41	-0.82%	WTI	77.62	+2.29%
MSCI 한국 ETF	79.36	-1.4%	금	1767.6	+0.5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4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장중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뉴스풀로우

주요 체크 사항

2.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따른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 주가 변환
3. 미국발 악재로 인한 코스피 3,000 선 하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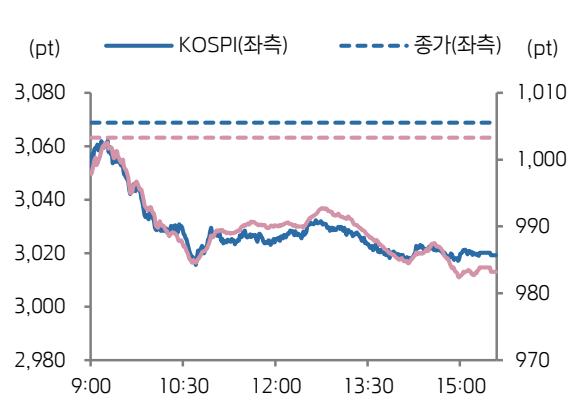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그동안 견조한 상승세를 구가해왔던 미국 증시도 9 월 말 이후 악재에 민감해지면서 조정국면에 진입한 상황. 아직까지는 조정의 폭이 깊지 않은 만큼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고점대비 약 4~7%대 하락), 악재성 재료들이 쉽게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가격 조정까지도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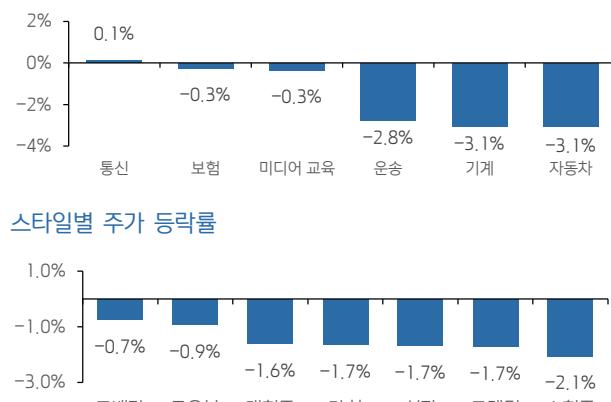
악재의 중심에 있는 부채한도 협상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두고 비판하면서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에서는 3.5 조달러 사회지출 예산안이 과도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역사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은 “진통 끝에 타결”로 귀결 됐으므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부채한도 유예 또는 상향 시 10 월 31 일 표결 예정인 1.2 조달러 인프라투자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 노이즈가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10 월 18 일로 시한이 설정된 만큼, 시장참여자들은 만에 하나 타결되지 못해 디플트에 빠질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정부 당시 맺었던 미중 1 단계 무역협상을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무역분쟁 불안감도 다시 자라나고 있는 모습.

결국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8 일(금)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을 필두로 3 분기 실적 시즌 모멘텀이 재차 발생해야 하는 상황.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발 악재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3,000 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성은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 벨류에이션 매력, 3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을 고려 시 매도 대응보다는 분할 매수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